

전통문양에서 나타난 음양태극과 삼태극 연구

A Study on Yin-Tang Taegeuk and Sam Taegeuk Shown in the Traditional Patterns

안창호
영동대학교

안창호
Ahn, Chang-Ho

영동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Contents

논문요약

Abstract

1. 머릿글

2. 음양태극

2-1 음양태극의 생성

2-2 음양태극의 상징

2-3 음양태극의 활용

3. 삼태극

3-1 삼태극의 생성

3-2 삼태극의 상징

3-3 삼태극의 활용

4. 음양태극과 삼태극의 비교

4-1 음양론과 음양중

4-2 이분법과 삼분법

4-3 삼재사상

5. 맺음말

참고문헌

논문요약

문양은 그 국가나 민족을 대변 할 만큼 함축된 철학이 있으며 그 집단의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사상이 응축되어있다. 한국의 전통 문양중 가장 대표적인 태극은 우주의 존재 원리를 일컫는 가장 핵심적인 말로서 고대부터 동양의 국기인 태극기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태극문양은 신비, 신성의 부호로서 신라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어왔으며 우리 민족의 국민 정신과 주권을 대표함과 아울러 조화, 창조, 단결의 상징이었다. 태극문양은 신라시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각처에 태극기 혹은 태극선, 태극마크 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음을 볼 때 민족적 문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음양태극은 음양론과 이분법 구조를 중심으로 주로 중국이나 일본등에서 많이 나타나며 귀족적이며 서양의 기본사상인 신본주의를 많이 닮았다. 이런 음양태극의 철학적 배경은 순수히 우리민족의 고유의 것이라고 자부하기엔 너무나 이질성이 많다.

이에비해 삼태극은 천.지.인 3합사상을 상징하는 문양이며 삼태극에는 평등과 민주적 사상이 있으며 삼라만상을 창조하는 이차가 담겨있어 예로부터 신성히 여겨왔다. 중국과 일본에 많이 나타나는 음양태극과 달리 사람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사상의 삼태극문양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이어온 문양이라 할 수 있으며 옛날부터 가장 사랑받는 문양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이 삼태극이 최초의 태극관념이며 우리민족의 정서에 맞는 상징적 문양이라 할 수 있다.

Keyword : Taegeuk / 2Taegeuk / 3Taegeuk

Abstract

There is an implicated philosophy to represent a country or a nation and a condensed form of consciousness,

unconsciousness and thought of the said group in the pattern. Taegeuk, one of the representative traditional patterns in Korea, is the most crucial word indicating the principle of the foundation of oriental philosophy since the ancient times and it has become our national flag today.

The Taegeuk pattern has been used since Silla Dynasty as a sign of mystery and solidarity as well as the national spirit of our nation and sovereignty. People have had an easy access to the Taegeuk pattern in their every day lives before Silla Dynasty to the present and the Taegeuk flag or Taegeuk line and Taegeuk mark have represented our country around the world : in this aspect, the Taegeuk pattern has functioned significantly as our national pattern. Yin-Yang Taegeuk based on Yin-Yang Theory and dichotomy has appeared mainly in China and Japan and it seems familiar with the scholasticism, which is fundamental and aristocratic in western thought.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the Yin-Yang Taegeuk has been mixed with various foreign thoughts and ideas so that it would be hard for us to claim that it is purely our unique heritage. In contrast, <Sam Taegeuk> is the pattern symbolizing the thought of combination of three elements such as Heaven, Earth and Human Beings and it has been considered very sacred from old times. Unlike the Yin-Yang Taegeuk shown frequently in Japan, <Sam Taegeuk> pattern based on humanity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noticeable patterns to express the identity of our as one of the cherished patterns from old times. Besides, it was the first concept of Taegeuk and he symbolic pattern appropriate to the sentiments of our nation.

1. 머릿글

한 국가의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 문양은 그 국가나 민족을 대변 할 만큼 함축된 철학이 있으며 그 집단의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사상이 응축되어 있다. 그러기에 문양은 그림으로 쓰여진 역사서이자 압축된 기호이다. 한국의 전통문양중 가장 대표적인 태극은 우주의 존재 원리를 일컫는 가장 핵심적인 말로서 고대부터 동양철학의 근본 바탕이 되어왔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태극문양은 우리민족의 조화의 상징인 용에 대응하는 신비, 신성의 부호호서 신라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어왔다. 우리의 태극문양과 비슷한 것은 거의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고대의 각 나라와 민족들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문양은 어느 민족에게나 행운을 상징하였던 점으로 봐서 고대 인류의 공통된 우주관에서 이루어진 우주 생성의 과정을 상징한 직관적인 문양이며, 형태에 있어 화적 유기성을 지닌 문양이다.

이와같은 태극문양은 우리 민족의 국민 정신과 주권을 대표함과 아울러 조화, 창조, 단결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태극문양은 우리민족에게는 특별한 문양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왔다. 한 국가의 상징물에는 그 민족의 역사속에 살아있는 정신적 근원이 되는 사상과 민족혼이 스며있게 마련인데 태극문양은 신라시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각처에 태극기 혹은 태극선, 태극마크 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음을 볼 때 민족적 문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문양중 가장 대표적인 음양태극과 삼태극에 대한 생성과 상징성,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음양 태극과 삼태극의 도상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그 의미성을 재해석하고 우리나라 국가상징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에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2. 음양태극

2-1. 음양태극의 생성

태극의 명칭은 아주 먼 옛날이라는 태고(太古)와 맨처음이라는 태초(太初)와 첫째되는 태일(太一)이라는 “태(太)”자와 하늘의 임금자리의 북극성이라는 “극(極)”자로 된 것이다.라는 해석과 태극의 ‘태(太)’는 ‘크다(泰)’는 뜻이고 ‘극(極)’은 ‘극점’ ‘끝’이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있으며 또 다른 해석을 보면 후한 허신의 <설문해자>에는 “극(極)은 대들보이다. 목(木)과 극(極)의 성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대들보는 나무로 만들며,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청의 단옥재(1735~1815)는 주에서 “과생된 뜻으로 지극히 높고 지극히 먼 것 모두 극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태극이란 ‘최고의 것’을 뜻한다. 이런 태극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르나 가장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태극은 큰 태(太), 더할 수 없이 극(極)의 만물의 기원으로 이해되며 천지창조와 만물 생성의 어머니로서, 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기 전의 세상 만물의 원시의 상태를 가리킨다.

태극은 하난의 명사(名詞)로서 역경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하나의 땅이 생기기 이전’을 이룸하여 태극이라고 하였다. 그 후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주돈이가 한 폭의 태극도(太極圖)를 그려 태극에 포함된 뜻과 그 발전 변화를 설명했다. 우리가 ‘태극도형’이라 부르게 된 것은 중국 주렴계(이름 돈이)가 태극도설을 발표한 뒤 정수학이 우리나라로 유입된(서기 1314년)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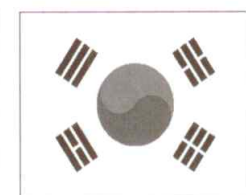


그림2) 현행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

그림1) 주례계 태극도설

<주역(周易)>에서는 태초에 우주가 생겨날 때에 태극이 생기더니 이 태극이 둘로 갈라져 하나는 ‘음’이 되고 또 하나는 ‘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지의 모든 현상과 모든 사물을 음양이원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였으며, 음과 양의 배합으로하여 모든 것은 변화하고 또 생서되고 새로 워져서 발전과 변형을 영원히 계속한다는 것이다. 태극에서 음·양이 생기고 음양은 사상으로 나뉘어지고, 태극은 천지가 개벽하기 이전의 상태로써 우주만물 구성의 가장 근원이 되는 본체를 일컬음으로, 사상이라 함은 음양의 네 가지 현상으로서 노양·노음·소양·소음을 일컫는다.

이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로 존재하고 있다. 만약 양이 조화롭게 돌지 않는다면 무극은 존재할 수 없다. 양의 세계는 외부로 퍼져 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세계인 음이 견제하지 않는다면 발산하면서 영원히 날아퍼져 없어질 것이요, 음의 세계는 끌어 당기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이 없다면 끝없는 수축 작용을 하면서 블랙홀로 영원히 빨려들면서 없어질 것이다. 이 두 세력이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이룰 때 생명이 탄생되고 우주가 운행되는 것이니, 이 두 음과 양의 운동을 하나된 도형으로 만든 것이 음양태극 도형이다.

중국의 서정(A.D. 222~280)이 쓴 <(삼오력기)>에 태극도상의 기본 정신인기에 관한 부분이 암시되어 있으며 텅 빈 어떤 상태가 우주를 낳고 그 우주가 기를 낳으며 그 기에는 갈라지는 성질이 있어서 맑고 밝은 것이 위고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이 아래로 내로가 땅이 되었다고 쓰고 있다. 이 두개의 기가 교감될 때 ‘음양’이 되고 그 ‘음양’에서 네 계절과 만물이 탄생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2-2. 음양태극의 상징

<주역(周易)>에서는 하늘과 땅을 비롯하여 천지 만물은 모두 음양이원론으로 성립하였다고 한다. 음양태극은 음과 양 두 질서가 서로 같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하나의 원을 만들어 내

는 지구와 인간의 창조원칙을 상징한 도형이다. 인간의 마음은 선과 악의 중간지점에 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 주돈이의 태극현상이라며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면서 태극의 상생운동이 시작된다. 이때 힘의 균형은 100이라는 완전수 안에서 55:45의 비율로 나타나며 인간의 구조도 55:45의 비율로 정해져 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이며 육신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늘의 뜻을 이룰수 없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우주의 법칙에는 상생의 진리와 상극의 진리가 공존하고 있으며 동양철학에서는 음양운동 법칙의 기본 하도와 낙서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하도(河圖)는 중국의 시조로 알려진 태호복희가 황하에서 발견한 용마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상생행도를 말하며 55개의 점으로 되어있다.

상생은 음양이 서로 사랑, 공존, 상부 상조하는 법칙이다. 자연의 변화 질서에서 서로 살려주는 관계를 말하며 행복한 부부생활과 다복한 가정을 의미한다. 낙서(洛書)는 복희의 시대에 낙수에서 잡은 거북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 오행그림을 말하는데, 낙서(洛書)에 그려진 오행 그림은 상생의 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서로 상극을 이루는 질서를 말하며 45개의 점으로 되어있다. 힘(낙서)이 동물의 만능법이라면 인간에게는 사람(하도)이 만능법이라 할 수 있다.

음양태극은 이런 하도의 법칙을 도형화 한 것이다.



그림3) 하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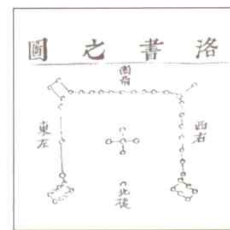


그림4) 낙서지도

오늘날 태극기에 나타나는 음양태극은 중국 도교의 심볼로 이해되며, 그 그림의 원형이 되는 도상을 11세기에 주자가 그렸다고 전해진다. 주자가

그런 태극도는 원을 흑백으로 양분한 모양이어서 이론적으로는 음양을 곡옥형(曲玉形)으로 나타낸 그림과 다를 바 없지만,

실제로는 음양태극이 갖고있는 우주적인 에너지(氣)의 움직임의 나타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은 주자의 태극도를 ‘정지적(靜止的)인 선구도형(先驅圖形)’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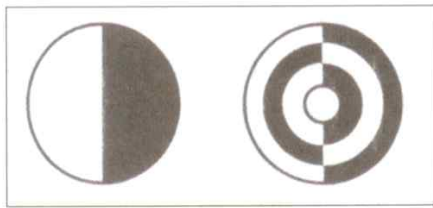


그림5) 주자가 그린 태극도

이 음양태극 은중국 고대의 사상으로, 만물이 생성 전개되는 근원, 음양의 이기(二氣)가 태극의 일원(一元)에서 생성했다는 사상은 <주역>의 <계시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인 본체, 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기 전의 세상만물의 원시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역경>에서는 음·양의 근원이자 통일체로 보았다.

음양태극은 주자가 설명하고 있듯이 태극(무늬)이 음과 양의 두 동인(動因)을 낳는 것을 표상한다. 무극이 태극을 낳고 태극이 양의(兩儀)를 낳고 다시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는다는 주역의 원리가 공간과 시간설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대개 음양이란 것은 일월의 빛이 비쳤다, 가렸다 하는 형상을 명명한 것이 아닌 곧 명암화상(明暗畫像)을 지적함이라, 하지만 명암의 양상이 그 자체로서 실질(實質)이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 만물이 거기에서 생성할 수 있겠는가.” 이말은 음과 양이 빛과 어둠의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므로 그 자체가 인간의 운명이나 우주만물의 운명을 헤아리는 근본원리가 되기에는 불확실하며 따라서 실제의 천문 관측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주역의 한낱 탁상공론이 되어 후세무민의 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을 암시한다.

만물의 역사는 음기와 양기가 서로 뺄대면서 어울리는 ‘상생상극(相生相剋)’의 작용에서 발생한다. 물론 음기와 양기가 서로 뺄대기만 해도 안되며 또 무작정 어울려 있어도 안된다. 그렇게 두 방향으로 확실하게 갈라져 버리면 어느쪽이든 기의 종말이 온다. 반고의 신하가 가벼운 것이 떠서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이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는 말은 기의 시작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올라간 기는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기는 다시 위로 올라가며 상호 원회운동을 전개하며 윤회의 법칙을 나타내고 있다.

음양태극은 우주의 근본인 태극이 음과 양의 양의(兩儀)로 나누어지고 이 음양의 두가지 힘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듯이, 우리 민족의 창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태극도형에 나타나는 음양태극도형은 음과 양의 상호작용에 우주만물이 생성, 발전하는 대자연의 영원한 진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창조와 발전을 의미한다. 결국 음양태극은 우주자연의 생성근본 원리이며 창조적 우주관을 담고 있다.

도표1) 음양태극의 상징

	()	☯	☳	☱	☵	☶
	☰(☰)	☷	☴	☲	☱	☶

2-3. 음양태극의 활용

태극문양이 주로 쓰여진 경우 무덤이나 사당, 또는 문묘, 능묘에서 찾아볼 수 있고 조선시대에는 건축석조물 뿐만 아니라 민화 또는 도석화, 무속호에서, 그리고 가구의 장식이나 자수·장신구 등 민속 공예품 다채롭게 쓰여졌던 것을 찾아보게 된다. 이런 태극문양중 2태극인 음양태극은 고려시대 석관묘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태조의 능인 건원릉과 태종의 능인 현릉에서도 음양태극이 보이고 있어 적어도 조선 초기에는 2태극인 음양태극이 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2태극으로 된 음양태극은 초기 건축 양식에

많이 나타나는데 창경궁 명정전의 석계와 우석 아래의 북모양으로 생긴 고풍석에서는 동심원으로 된 2태극 음양태극이 나타나며, 이밖에도 음양태극은 진주 문묘의 대성전 판문에서, 또는 경북 월성군의 월성관 중문 서까래 마구리에 그려진 2태극, 또 서울 사회동에 소재한 백인제가는 지방 만속자료로 보호되는데 사랑차와 안마당쪽의 화초장의 완자무늬에서 청·홍의 2태극 무늬가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사당으로 보여지는 건물이다.

또 음양태극은 조선시대 때 충절과 효행 또는 지극한 공을 운 공신의 무덤이나 집에 내려서 집앞에 세워 표식으로 삼던 문의 홍실문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건원릉 등 지금 까지 남아있는 30개소중 2태극 음양태극은 정릉 등 16개소이며 2태극 음양태극의 경우 그 모양이 음양태극도형으로 된 곳은 정릉 등 13개소이며 반다의 음양태극도형으로 된 곳은 3개소이다.

이상과 같이 음양태극의 분포 살펴볼 때 대체로 불교적인 배경보단 유교적인 배경을 엿볼 수 있다.



그림7) 동구릉의 음양태극문양



그림8) 음양태극문양 장석



그림9) 음양태극무양 대무



그림10) 음양태극무양 호삼무

3. 삼태극

3-1. 삼태극의 생성

<천부경(天符經)>에는 ‘석삼극’이라 하여 삼태극의 이론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삼극은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삼재를 일컫는다 하였다. 즉 ‘일중천지일(人中天地一)’이라 하였는데,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이라, 사람은 하늘과 땅이 하나에 맞추어 삼재가 되나니, 사람이 능히 그 본심의 하나를 잃지 않으면, 천지만물의 근본이 나와 일체가 되므로 이른바 천하의 큰 근본을 세우는 이는 이에서 얻음이니라’하고 있다. 즉 삼태극은 그 세끝을 움직여서 만물을 생성시킨다는 뜻이다. 결국 천하의 큰 근본은 하나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이 나뉘어 삼극이 되고 또 삼극이 이미 이루어지니 만가지 이치가 다 이로 말미암아 나게 되므로 그 큰 근본은 쇠진함이 없다고 한다.

또 삼극은 ‘천일일지일이인일삼(天一—地—二人—三)’이라 하였다. 이를 풀이하어 ‘하늘은 하나를 얻어 하나가 되고, 땅은 하나를 얻어 둘이 되고, 사람은 하나를 얻어 셋이 되는데, 도는 하늘에 있으면 천도가 되고, 땅에 있으면 지도가 됨, 사람에게 있으면 인도가 되나니, 나누면 삼극이 되고 합치면 한 근본이 된다’고 말한다. 삼극, 즉 삼태극은 이렇듯 큰 근본을 나누어 나타낸 ‘석삼극’의 이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양에서는 자연생성에 대한 해석 및 사상을 바탕을 모든 수리에 두었다. 곧 우주 운행의 원리를 수리로 설명하고 있다. 고대 사람들은 자연은 하늘과 땅 사이에 형성되었으며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우주 운행이 시작되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11) 최치원의 저서 단전요의에 수록된 천부경 원본



그림12) 한단고기, 소도경전본훈의 천부경 원본

3-2. 삼태극의 상징

<천부경>에서는, 하나는 우주의 근본이요 만유의 비롯되는 수이며 이를 분석하면 하늘과 땅과 사람, 조화와 교화와 치화, 그리고 개천·개지·개인의 3가지는 무극의 경지에 통하고 또 무극은 태극인 것이므로, 태극을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는 민족사상을 한국의 고유한 정통사상인 삼신사상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장생불멸과 상통하며 무궁한 변화와 생성·발전·개벽의 사상인 것이다. 한국의 삼신사상은 중국 대륙에 또 일본 열도에 유교와 도교의 심오한 진리를 남겼으니 그 원천이 바로 삼신사상이었던 것을 태극 이념을 통해 짐작할 수 있으며 삼태극은 세상을 다스려갈 인간의 역할을 도형화 한 것이다.

삼태극은 <소도경전본훈> 제 5에 이르기를, “대일, 즉 극은 양기가 이름이다. 없는 듯 있는 듯 혼하고, 빈 듯 거친 듯 묘하다. 삼일은 그 체요, 일삼은 그 용이다. 혼묘는 하나의 고리로 체와 용은 갈라지지 않는다. 커다란 허공에 빛이 있으니 이것은 신의 모양이요, 커다란 기운이 오래오래 있으니 이것이 신의 조화이다. 진명의 근원이요 만법이 여기서 나온다. 일월의 아들은 천신의 충이다 비추어 선이 되고 원각 하여 능히 세상에 크게 내리어 만 가지 그 무리가 있게 된다. 고로 원은 일일 무극이며, 방은 이요 반극이며, 각은 삼이요 태극이다. 무릇 홍익인간을 천제가 환응에게 내린 까닭이다. 일신강충(一紳降衷)과 성통광

명(性通光明)과 재세이화(在世理化)와 홍익인간은 신시가 단군조선에 전한 이유이다.: 라고 풀이해 주고 있다.주14)

한국인 사상의 핵심은 천지인 합일사상이다. 하늘과 땅 즉 자연과 인간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며 자연이 곧 인간이라면 음양오행 진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인간도 파멸한다는 것이다.

빨강 색은 양의 심벌로서 하늘, 우주를 표현하고 파랑은 음의 심벌로서 땅을 표현하고 노란색은 음양의 중간 기운의 심벌로서 사람, 나를 표현하고 있다. 삼태극에서는 음양만 있는 태극에 ‘나’를 더 추가한 것이다.

도표2) 삼태극의 상징



☰	☷	☱	☲	
☳	☴		☵	☶
☸	☹	☺	☻	☼

3-3. 삼태극의 활용

가장 구체적인 이른 시기에 삼태극문양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경주 미추왕릉지구 신라 고분에서 발굴되었다는 보검장식이 있으며 이 보검은 신라 무덤에서 발견된 것이긴 하지만, 그 모양은

분명히 서역 계통의 것이며 실제로 중앙아시아의 고분에서 거의 같은 모양의 보검이 상당수 발굴된 바 있어서 여기에 의장된 태극무늬가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주목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삼태극 도형의 분포와 그와 같은 사상과 관념이 멀리 중앙아시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인 감은사 터에서 남아 전하고 있는 건물지의 장대석 측면에 새겨진 3태극 무늬는 태극도상이 실제적으로 표현된 가장 오래된 유구이며 이 감은사지 장대석의 삼태극문양은 불교건축에 쓰여졌다. 그밖에 태극무늬가 불교 의장으로 나타난 예는 극히 드물다 하겠으나 조선시대 사찰의 단청양식에서 얼마간 찾아볼 수 있다.

삼태극 문양은 건축양식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창덕궁대조전 월대 동쪽 석계 고흥석에 음각된 삼태극과 돈화문 정면과 대구에 있는 문묘 대성전의 정문, 진주 향교의 풍화루에 새겨진 삼태극 문양은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건축, 석조물에서 주로 삼태극 문양이 많이 나타나며 음양태극과 마찬가지로 홍살문에서도 삼태극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현재 삼태극으로 된 곳은 건원릉, 현릉 등 9개소이다.

또한 삼태극문양은 우리 민족이 일상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애용하던 사랑·행복·장수의 상징적 표시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은 많은 장신구를 비롯하여 수예품, 가구의 부분장식·옷감무늬·능화판 등에서, 그리고 등경걸이(등잔을 걸어놓는 기구)·거울·목침·베개·색지상자 등등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삼태극은 일본에서도 나타나며 각 성씨별로 독특한 문양 곧 가문(家紋)을 사용하는데, 이 가운데 좌우로 도는 삼태극 모양의 문양과 여러 변형들을 사용하는 성씨는 수백 개를 넘는다. 삼태극 문양을 일본에서는 삼파문이라고 부른다. 가문의 시작은 헤이안 시대 말경부터, 세력가들이 자신의 집 소달구지에 집안의 표지로서 문양을 그린 것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정설이다.



그림13) 미추왕릉
금제감장보검



그림14) 감은사지 삼태극문양



그림15) 종묘의 삼태극문양



그림16) 덕수궁 돌계단 삼태극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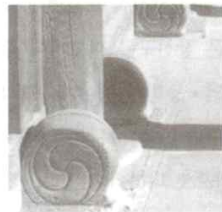


그림17) 조그마기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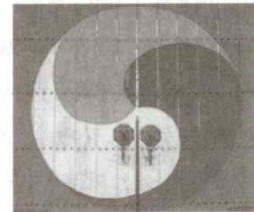


그림18) 태무세

4. 음양태극과 삼태극의 비교

4-1. 음양론과 음양중

태극은 생명의 상징이다. 생명체는 음과 양의 화합으로 탄생하며 태극은 정자, 태아등 생명의 근원을 상징화 한 도형이기도 하다. 음양태극은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즉, 시작된 것은 있으나 시작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음양의 화합으로 오묘하게 변화 발전하는 과정을 선으로 그려 놓은 것이 음양태극문양이다. 이런 음양태극은 빛과 그림자를 나타내며 이것은 음양에는 실체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19) 전통복의 삼태극 문양



그림20) 삼태극의 태극선



그림21) 삼태극 바지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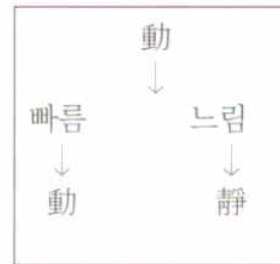
그림22) 삼태극묘아이 충사문

음양이라 함은 태극으로 표현되어 동양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자연의 원리로 예컨대, 태양·달, 아버지·어머니, 정신·육체, 밤·낮, 양성자·음성자, 알·파선·베타선 등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세상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 즉, 무극의 상태에서 극이 생겼으며 이것이 태극이다. 즉, 하나에서 분별이 생겨 여러개로 나뉘는 것인데, 그 것을 가지고 땅에 대입하고, 하늘에 대입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입하여 우주 변화의 원리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동양 사상의 개념이다.

우주는 원이며 지구도 원이다. 지구는 보이는 현상(양)과 보이지는 않지만 규칙적으로 흘러 가는 시간(음)이라는 두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태양은 아침이면 어김없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저녁이면 서쪽으로 넘어가고 밤이 온다. 따뜻한 봄기운이 돌면 새싹이 자라고 여름이면 무성한 숲을 이룬다. 꽃이 피고 지면 잎은 시들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 겨울이 되면 모든 수분이 뿌리 속으로 모여들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한다.

음양론에서 양은 동(動)을 의미하고 음은 정(靜)을 의미하는데 음양론은 음양태극의 근간을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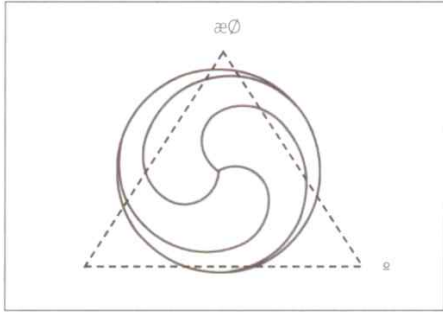
는 것으로 서로 반대되고 비교 되는 것을 말하며 지구를 달과 비교하면 양이 되고 또 지구를 태양과 비교하면 양이 되는 것처럼, 처해있는 여건과 환경에 따라 음과 양은 변하여 양이 음이 될 수 있으며 또 음이 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변화하고, 변화하였으면 다시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태극에 나타나는 음양론은 결국 윤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 두 가지의 대립되는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의 역할을 하는 즉, 중(中)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지구, 자식, 마음, 밤·낮의 교차 시점, 중성자, 감마선 등등이 그것이다. 삼태극 철학의 기본 근간인 음양중은 삼태극과 삼성(三星)등으로 오래전부터 민간에 전래 되어왔으며 이것을 우주에 비유하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또 달은 지구의 주위를 돌며 지구·태양·달이 음양중을 이루는 것으로 달리 설명 할 수 있다. 이것을 가정에 비유하면 남편은 양에 속하고 아내는 음에 속하고 자손은 중에 속한다. 자녀는 한 가정에서 부모를 서로 다투게도 하고 화해시키기도 하는데, 가정은 변화하고 발전하기에 자식은 가정에서 중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주의 음양주의 원리가 소우주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음양 변하여 중을 이루기도 하고 중은 음양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또 음양중은 합하고 변화하여 오행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것은 지구 태양 달은 주위에 목성·화성·토성·금성·수성등의 행성을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도표3) 삼태극의 음양중



4-2. 이분법과 삼분법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상징이 바로 ‘양태극(兩太極)’이다. 이 때 태극에서 하늘과 땅을 둘로 분할하는 선이 직선이 아니라 유연한 곡선인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태극은 상대(相對)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相補)이며 상생(相生)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곧 조화를 뜻하고 조화란 서로의 성질과 기운을 잃지 않으면서 잘 어울려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양태극은 중국에서 중심적으로 쓰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이를 삼태극(三太極)의 형태로 발전시켰다.

음양태극에 나타나는 이분법은 서양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으로 하늘과 땅, 빛과 그림자, 천사와 악마, 좋고나쁨등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모든 우주의 원리를 이해해왔다. 이런 이분법의 음양설은 억음존양(抑陰尊陽) 즉 음을 누르고 양을 높인다는 사상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의 봉건주의 사상으로 뿌리 깊이 내려 왔으며 남녀칠세 부동석의 관습을 낳기도 했다. 이런 불평등하고 귀족적인 발상은 동중서의 독존 유술 시대에 음양사상에도 나타나는데 남자 특히 부권의 절대적 지위를 보장받았고 부창부수, 삼존지도라 하여 여자들은 시집가기전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하고 시집가서는 남편의 말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말을 따라야 하는 남존여비의 불합리한 사상으로 발전 하였다.

음양태극에서 이분법은 하늘과 땅, 상위와 하위의 개념, 임금과 신하, 남자와 여자등 절대적인 두개의 개념이 존재하며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중속관

계로 엮어져 있다. 결국 음양태극의 이분법은 서양에서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닌 신본주의(神本主義)를 나타내는 것이다.

인간에게 행동이라고 하는 보이는 실상(양)이 있고 마음(음)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삼태극의 삼분법은 정신과 육신과 마음이 하늘의 도(天)와 땅의 도(地), 인간의 도(人)가 합쳐져 화합의 원을 이루기 위하여 모여드는 과정으로 완벽한 조화와 화합을 상징한 것이다.

이 삼분법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평등한 관계를 말하며 천심이 민심이며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동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도선국사와 동학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사상으로 이어졌고 지령인걸(地靈人傑)사상에서 말하는 ‘동격’을 말하고 있다. 이 삼태극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人本主義)를 나타낸다.

이런 삼태극의 삼분법 사상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명에도 계속 쓰여져 오고 있는데 박달재는 옛날 天登山, 地登山, 人登山이라 불렸으며, 광주의 무등산은 하늘과 사람과 땅은 등수가 없다는 민주적 사상을 말해 주고 있다.

도표3) 음양태극과 삼태극의 도상적 비교

음양태극	이분법	하늘 땅	음양 오행	대립	귀족적	神本主義
삼태극	삼분법	하늘 땅 사람	홍익 인간	조화 화합	서민적	人本主義

4-3. 삼재사상

삼태극에서 하늘과 땅 이외에 또 다른 한 부분은 바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양태극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던 하늘과 땅인 인간의 주관적 인식세계로 흡수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하늘과 땅과 마찬가지로 격(格)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선인들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氣運)이 조화롭게 상생

(相生)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를 천지인 삼재(天地人 三才)사상이라고 한다.

한국인에게 3이란 숫자는 매우 특별하다. 3은 완성수, 신성수로 재복과 길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어떤 일에 몰두하였을 때 삼매(三昧)에 들었다고 한다. 또한 무슨 일이든 3번째라는 믿음과 함께 살아왔다.

동양에서는 자연형성에 대한 해석 및 사상의 바탕을 모두 수리에 두었다. 곧 우주운행의 원리를 수리로 설명하고 있다. 고대 사람들은 자연은 하늘과 땅 사이에 형성되었으며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우주운행이 시작되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수리로 풀이해 보면 만물이 조형되는 원리는 하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여 그 형성 순서대로 하늘은 일(一)의 수로써 나타내었다. 하늘의 말씀이 땅에 전달됨으로써 비로소 만물에 형상이 부여되어 자연의 삼라만상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간주하여 땅을 그 형성 순서에 따라 이(二)의 숫자로 나타내었다.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의 변화의 매개체로서 존재한다고 믿어 삼(三)의 수로써 나타내었다. 이런 삼재의 사상은 곧 삼태극 사상이며 이런 삼태극은 3개로 나뉘어 돌고 있지만 완성된 하나의 원을 만들어 내는 하나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삼재사상은 서로 상극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조화롭게 상생(相生)하는 것을 의미한다.

5. 맺은말

과거 역대 사상가들은 자기 나름대로 태극을 해석하면서 중국 송대 정주리학과 조선의 성리학은 권력에 힘입어 태극을 당시의 지배계급층을 옹호하는 논리의 도구로 삼음으로서 태극은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버렸다. 그러나 20세기의 형이하학적인 현실관은 청과 조선이 지배했던 공허한 이상주의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므로 진리가 형이상학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자각은 동양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고 중국은 공자를 비판하기 시작하기 시

작하였으며, 한국은 성리학을 외면하고 서구 문물의 수입에 몰입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이런 커다란 변화기를 거치면서 태극에 대한 공허한 이론은 빠져나가고 현실적인 내용만 남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태극의 이론을 무술에 접목시킨 태극권으로, 한국에서는 태극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삼아 태극도형(太極圖形)을 국기에 그려 넣었다.

이런 태극문양이 우리의 국기에 사용된 것은 1882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음양태극의 철학적 배경은 순수히 우리 민족의 고유의 것이라고 자부하기엔 너무나 이질성이 많다. 실제로 중국에서 예전부터 가정이나 상점, 학교 등에 행운의 상징으로 그려졌고 특히 분묘나 사원에서는 종교적인 심볼로 음양태극이 사용되어졌다.

한국인 사상의 핵심은 천지인 합일사상이다. 하늘과 땅 즉 자연과 인간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며 자연이 곧 인간이라면 음양오행 진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한국인은 삼태극 문양을 가장 사랑한다. 삼태극은 천. 지. 인 3합사상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삼태극에는 평등과 민주적 사상이 있으며 삼라만상을 창조하는 이치가 담겨있어 예로부터 신성히 여겨왔다. 중국과 일본에 많이 나타나는 음양태극과 달리 삼태극문양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이어온 문양이라 할 수 있으며 옛날부터 가장 사랑받는 문양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이 삼태극이 최초의 태극관념이며 우리민족의 정서에 맞는 상징적 문양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안상수, 한국전통문양집5,(도서출판 안그래픽스 1989)
- 2) 백문섭, 올바른 태극기 해설(보경문화사 2000)
- 3) 김상섭, 태극기의 정체, (동아시아2001)
- 4) 정연중, 한글은 단군이 만들었다, (도서출판 쥘이정 인터내셔널, 1996)
- 5) Rudolf Arnheim, Toward a Psychology of Ar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 6) 大野勃<檀奇古史>, 上古文化史, 단기4292년, P76
- 7) 우실하, 최초의 태극 관념은 음양태극이 아니라 삼태극/삼원태극이었다, P4
- 8) 두산동아 CD-ROM 백과사전
- 9) 중앙멀티미디어 백과사전
- 10) www.naver.com
- 11) www.daum.net
- 12) www.google.co.kr 檀奇古史